

국제결혼에서 귀환까지: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

최 호 림**

요약

본 연구는 송출국 사회의 시선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귀환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국제결혼가족의 해체 문제를 고찰한다. 국제결혼 가족의 해체 사유는 다양하지만 상업적인 중매업을 통한 국제결혼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빈곤을 탈출하고 본국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주여성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기본적인 가족관계의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폭력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고립을 겪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함께 남편의 건강 및 경제능력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자녀 양육문제도 심각했다. 이혼한 이주여성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체류자격이다.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한 고통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 뿐 아니라 출신국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제어: 베트남, 결혼이주, 귀환이주자, 국제결혼가족, 메콩델타

* 이 연구는 2011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 hrchoivn@hanmail.net

I. 귀환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대표하는 결혼이주 흐름이 국제이주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아 왔다.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개발국의 높은 출산율, 노년 인구 급증, 독신 여성 비율 증가 등 인구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한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이들 국가로 상대적 빈국 출신 여성의 결혼이주가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Bélanger 2011, 8).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이주의 다면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주 정착 과정뿐만 아니라 귀환 이주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제이주가 단순히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단일한 방향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와 정착, 적응 혹은 부적응 및 갈등과 귀환, 재이주 등 다면적인 경로를 포함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귀환현상 또한 이주의 결과적인 실패 혹은 성공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 즉 이주자가 목적했던 바대로 이주나 정착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귀환하게 된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이주자들은 고국에 대한 투자, 재취업, 결혼, 출산 또는 가족부양 등 다양한 이유로도 출신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귀국 사례는 여타 귀환 이주자 흐름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는 영구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결합을 통해 성사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의 귀국은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일시적 이주와 달리 결합의 해체(union dissolution)에 해당한다(Bélanger, Khuat and Lee 2011, 86-87). 노동이주를 포함한 경제이주자의 귀환은 대부분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이며, 취업활동을 통해 고향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함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목표도 달성하게 된다. 설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귀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사회관계의 해체를 포함하는 문화적 문제, 즉 문화적 적응의 실패라는 경험을 내포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반면에 결혼이주자의 귀환은 대부분이 ‘실패’가 원인이 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주자들이 겪은 다양한 갈등과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인식 및 감정도 결부되어 있다. 결혼이주자의 귀환 이유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귀국 후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경험과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이주자의 열망과 희망, 가족의 결합 이후 겪게 된 현실의 격차로 인한 실망과 낙담, 그리고 분노와 좌절 등 연속성을 갖는 일련의 감정들로 녹아 있다. 나아가 결혼이주자의 귀환은 귀국 이후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장기적인 이슈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결혼이주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외로 이주해 나가기 위한 단번의 시도가 아니라 장기간 정착을 통한 가족 재구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이나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대개의 연구가 이혼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에서 원인을 찾고자 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공통적으로 국제결혼 부부 갈등의 사유로 성격 차이, 생활방식 차이, 경제적 문제, 남편의 음주 등을 들고 있다(설동훈 외 2005, 118-19; 설동훈 외 2006, 104-105). 배우자간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음주 등은 일반적 가족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갈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온 배우자간의 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측면으로 가족원 간에 매우

익숙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질서나 내재화된 규범의 차이가 가족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김이선 외 2010, 7).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정도는 한국의 일반 부부보다 높으며, 특히 문화적 차이가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오남 2006).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약 또한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김이선 외 2006; 윤형숙 2004; 한건수 2006).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 정체성 등이 갈등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았다.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국제결혼 가족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고찰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10; 최호림 2013). 한국의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을 강조하는 관습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 출신 여성이민자는 대개 양변제 가족 질서를 내면화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관이나 가족원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 등 가족 관계와 행위의 규칙을 이루는 제반 요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와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 사이에는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부간에 수평적이고 유연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데 비해 한국인 남편들은 개인보다 가족 중심적인 태도가 강하며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부부 관계, 남성 중심적 부계가족 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시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태도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선 외 2007, 124-34).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세한 문화적 관습과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가족내 갈등이 발생, 증폭되기 쉽다.

아울러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을 인해 여성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는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설동훈 외 2005; 박재규 2007; 정기선 외 2007).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자의 비율은 지방에 따라 34~3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폭력이 이혼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 150-51).¹⁾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송금 등을 통한 본국 친정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분증 압류, 외출 통제, 혹은 송금 통제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폭력에 직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이선 외 2010, 9-10).

최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도 시도된 바 있다. 특히 부부간 연령 격차와 교육수준의 차이가 결혼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혼인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 이명진 2007). 국경을 넘은 결혼의 특성상 배우자가 처한 환경과 결혼의사에 대한 확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혼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단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결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설동훈 외 2006, 63-65; 정기선 외 2007, 148-149; 김이선 외 2010, 11)²⁾

1) 정기선 외(2007)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7.3%가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데 비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43.9%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갈등을 겪는 모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설동훈 외(2005) 및 정기선 외(2007)

이와 같은 연구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가족의 해체 사유와 제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해체 이후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출신지로 귀환한 이주 여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출국 사회의 시선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귀환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국제결혼가족의 해체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만 또는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주요 출신 지역인 남부 메콩델타 농촌과 호치민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2008~2013년 사이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쾨터(Cần Thơ)시 툯돗 구(Quận Thốt Nốt), 오몬 구(Quận Ô Môn), 티라이 현(Huyện Thới Lai), 그리고 허우장(Hầu Giang) 성의 풍히엵 현(Huyện Phụng Hiệp)과 호치민시 변두리 지역에서 귀환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났다. 이중에 본문의 기술에 활용된 면접 자료의 대부분은 201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리고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 나는 호치민시국립대학교 인류학과 및 사회학과의 교수, 호치민시개방대학 동남아학과 교수, 베트남 가족-젠더연구소의 학자 등을 만나 면담하였다. 베트남여성연맹 쾨터 지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한국문화원 등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 과정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시선과 인식, 문제점에 관한 여론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자들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했지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 체류자격 상실 우려, 본국 가족 부양, 종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존적 체류자격, 본국 가족과의 관계 등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이 이들을 가족 폭력 위협에 노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이혼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면접한 귀환 결혼이주 여성 목록³⁾

이름(가명)	출신지	출생년도 (결혼 나이)	귀환 사유	한국체류기간	자녀
언(Ân)	Thới Lai	1985 (24)	이혼	약 4년	
꺼우(Câu)	Ô Môn	1988 (19)	도망	2년 4개월	1명
즈영(Duong)	Thốt Nốt	미상	이혼	미상	
끼우(Kiêu)	Thốt Nốt	1988 (20)	이혼	2년 2개월	
란(Lan)	Ô Môn	1990 (20)	‘강제’ 이혼	9개월	
란안(Lan Anh)	Ô Môn	1989 (20)	도망	1년 10개월	
레(Lê)	Thốt Nốt	미상	이혼	미상	
리우(Liêu)	Thốt Nốt	1983 (22)	이혼	3년 2개월	
린(Linh)	Ô Môn	1990 (19)	‘강제’ 이혼	1년 6개월	
미(My)	Thốt Nốt	1991 (19)	이혼	6개월	
쌍(Sinh)	Thốt Nốt	미상	이혼	미상	
탄(Thanh)	Phụng Hiệp	1988 (21)	이혼	2년 2개월	
투(Thu)	Thốt Nốt	1985 (21)	사별	5년	2명
투이(Thúy)	Thới Lai	1987 (22)	이혼	약 2년	
뚜(Tu)	Thốt Nốt	1988 (22)	‘강제’ 이혼	3개월	
뚜옌(Tuyên)	Thới Lai	1987 (21)	도망(임신중)	1년 1개월	1명
번(Vân)	Thốt Nốt	미상	이혼	약 2년	
이옌(Yên)	Phụng Hiệp	1988 (21)	‘강제’ 이혼	8개월	

내가 면접한 18명의 귀환 이주여성 중에 한 명은 남편과 사별하였고, 세 명은 도망을 나와 귀국한 경우였다. 나머지는 이혼 후 귀국한 사례였다. 도망을 나왔다는 여성 중 한 명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였고 다른 한 명은 임신한 채 귀국한 후 출산을 한 경우였다. 이혼 후 귀국한 여성 중에 네 명은 남편 가족에 의해 ‘강제 이혼’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제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없었다. 한국에 체류기간은 입국한 지 몇 주 만에 ‘강제 이혼’ 당한 뚜(Tu, 2012년 당시 25세)씨를 제외하고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

3) 본문에 등장하는 이주여성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본문에 표시된 연령은 2012년 면접 당시의 나이이다.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여성 외에 모두가 중매업자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귀국여성의 이야기에는 국제결혼과 이주과정에서 이들이 겪은 어려움과 수용국에서 경험한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혼, 사별, 강제 귀국 혹은 도망 등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한 ‘가족 해체’의 경험은 이주민의 인생에서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쏘안 교수의 주장처럼 귀국한 이주여성들이 경험에도 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바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guyen Hong Xoan 2013). 필자가 만난 여성들이 겪은 고충의 강도나 종류, 그리고 그것이 축적된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한 고통을 끝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귀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나는 귀환 여성들이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시기에 가졌던 희망과 열망,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행 결혼이주를 실행했던 과정에 대해 먼저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바에 대해 가능하면 상세하게 듣고자 했다. 특히 결혼 전에 기대했던 바와 한국에서 실제 경험한 바의 격차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해 물었다. 또한 그들이 귀국한 경로 및 과정과 귀국 후 고향마을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겪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본문에서 먼저 베트남 여성의 해외 결혼이주의 주요 특징과 함께 한국행 결혼이주 현상의 주요 추세 및 이에 대한 베트남 내부의 시각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귀환 이주여성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한국행 결혼이주의 다면적인 과정과 귀환 전후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주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변화 되어 왔으며 국제결혼은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통한 일본으로 이주 사례는 1980년 4,386건에서 1990년에 20,026건으로 급증하였고, 1999년~2009년 기간에는 매년 25,000~35,000건을 기록해 왔다(Lee 2012). 일본으로 결혼이주 흐름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특히 대만과 한국행 결혼이주가 급증했다. 1987~2006년 기간 대만에는 약 37만 건의 국제결혼이 행해졌는데, 90% 이상이 중국, 베트남 및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의 결혼이주에 의한 것이다(Duong 2008). 이러한 이주 현상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상업적인 목적의 중개업 브로커에 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결혼이주 흐름이다. 한국 및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의 63.5%가 중개업체를 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한국과 대만과 같은 결혼이주의 목적지 국가는 정착 이민프로그램이 없으며, 결혼을 통한 가족의 결합이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 노동력 충원의 필요는 일시적 계약 노동자들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다. 한국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21세이다. 넷째, 결혼이주자는 수용국 사회에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분히 많다. 최근 한국과 대만의 결혼에서 국제결혼은 15~30%에 이른다(Bélanger, Khuat and Lee 2011, 84).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은 식민주의, 전쟁, 개혁개방 등 베트남 근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전개되어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모두 60개국의 사람과 국제결혼을 해왔고 대부분이 베트남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결혼이다(Nguyen Thi Hoa 2008). 1954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프랑스 식민군대에 복무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모로코 출신 남성과 베트남 여성 부부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남성들은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들이었다. 1954년에서 1975년 사이 벌어진 베트남전쟁 중에는 미군과 결혼하는 베트남 남부 출신 여성들이 생겨났다(Nguyen Hong Xoan 2012). 1980년대 이전까지 베트남의 주된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포들 간의 결합이었다(Luu 2008). 1990년에 들면서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제결혼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업적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주가 대세로 등장하였다.

베트남 여성과의 대만남성의 혼인이 2011년까지 약 11만 건에 달해 한국남성과의 결혼의 두 배를 넘는다. 베트남 호찌민시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Taipei Economic and Cultural Office, TECO)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7년 사이 총 97,066명의 베트남 여성이 대만 출신 남성과 결혼했으며 이러한 국제결혼 추세는 1999년과 2004년 사이 정점에 달했는데 이 시기 동안 대만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13,837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점을 찍고 난 후부터 그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000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Nguyen Hong Xoan 2012).

2004년 이후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가 급증한 것은 대만행 결혼이주가 제한된 것에 크게 기인한다. 2003년 초 베트남 여성 도안 넷 링(Đoan Nhật Linh, 당시 19세)이 대만의 한 공장 쓰레기더미에 버려져 20kg의 시체와 다름없는 몸 상태로 발견되어 베트남사회를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⁴⁾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폭

4) VnExpress. 2004. “Thảm cảnh của những cô gái Việt lấy chồng Đài Loan”(대만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의 참혹한 처지) <http://vnexpress.net/gl/xa-hoi/2004/07/>

력, 인신매매 등 심각한 사건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자 대만인과의 결혼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주과정에서 위장결혼, 결혼사기, 인권침해,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자 대만정부는 국제결혼 및 비자승인 제도를 개정하여 결혼 당사자 전원을 심층 인터뷰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결혼 중개업체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이 대만행 결혼이주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면서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감하게 된다. 반면에 2000년대 초 한국행 결혼이주 절차는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되었다. 당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경우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영사와의 까다로운 면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Duong 2008).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 또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했다(김현재 2007).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재현되고 있는 활기차고 세련된 도시생활과 정감 넘치는 가족의 이미지로 유발된 한국사회에 대한 선망 또한 한국행을 선호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팽배한 인식과, 결혼이주자나 국제결혼가족 당사자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갈등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근거하는 분석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주여성의 실제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 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1. 메콩델타 출신 신부와 ‘부자 나라’의 가난한 신랑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주 여성의 다수가 메콩델타 지역 농촌 출신이다(Nguyen Van Tiep 2008). 최근 수년 간 북부베트남에서 결혼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별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남부 메콩델타는 베트남에서 가장 빈곤한 지방에 속하며 매년 홍수나 열대성 폭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가난과 자연재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지역은 베트남인과 함께 크메르인, 중국인, 인도인 등이 거주하여 다문화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외부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베트남의 연구자들은 이(異)민족과의 결혼에 관대한 태도는 이런 개방적-다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Nguyen Hong Xoan 201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학력 수준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Hoang 2008). 연구자가 만난 귀국여성의 경우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다.⁵⁾ 이들 대부분이 실업상태이거나 미숙련 직종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다가 결혼이주를 결정한 경우였다. 결혼이주 여성도 가난을 피해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고자 하지만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해외 이주를 선택할 수 없는 형편이다.⁶⁾ 이주여성들은 결혼 전에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거나 장사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결혼 당시에는

5) 베트남-한국 부부 간의 교육 수준 차이는 베트남-대만 부부 간의 차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대만 부부의 경우 거의 모든 신부(99%)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었고 90% 이상의 대만 신랑이 중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인 남편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이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Hoang 2008).

6) 메콩델타 농촌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부모 또한 빈곤층으로 농민(39.2%) 또는 저임금 고용노동자(54%)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Nguyen Hong Xoan 2013).

대부분이 가사일을 하며 부모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브로커들로부터 한국이나 대만 남성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좋은 가정주부가 되길 기대한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5년 동안 한국에 살았던 한 여성이 말했다.

한국에 도착한 첫 해에 나는 한국어를 알지 못해 손짓 몸짓으로 대화해야 했다. 나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현대식 장치들을 사용할 줄 몰랐다. 그래도 남편의 2층 집과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에 매우 행복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방식 차이와 남편 가족의 태도는 나를 매우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베트남의 가난한 가정 출생이라고 나를 알아보며 화를 냈다. 가사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항상 꾸중을 하였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그들은 내가 물건을 훔쳐서 베트남에 보낼까봐 모든 것을 감시했다.(Thu, 28세)

교육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도 배우지 못한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형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만난 귀환 이주여성의 한국인 전남편의 직업은 농업 5명, 노무직 3명, 사무직 4명, 상업 2명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는 실업상태였고 이들 중 두 명은 장애인이었다. 결혼 당시 남편의 연령은 36세에서 45세까지였고 신부와 12세에서 24세까지 차이가 났다. 이것은 베트남 학자의 연구에서 파악된 바와 유사하다. “배우자를 찾으러 베트남에 온 한국 남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미숙련 직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이 대부분이다. 배우자가 될 베트남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고 상당수는 장애를 갖고 있다.”(Hoang 2008).⁷⁾

7) 같은 연구에서 대만-베트남 부부와 유사하게 한국-베트남 부부의 85%가 10세 이상의 연령 차이를 보이며 15%는 20세 이상의 차이나 난다고 파악되었다(Hoang 2008).

“18-22세 나이의 많은 여자들이 대만이나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다. 이 여성들이 젊고 아름다워도 가난한 가정 출신이다. 만약에 이들이 부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전터시 톡쯔구 편록(Tân Lộc) 마을 촌장, 57세]

2. 늘어나는 이혼과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평가

2011년 한국행 결혼이주 여성 중 베트남 출신이 7,636명(전체의 34.3%)으로 중국 출신(7,549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였다. 한국행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2000년에 77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부터 매년 평균 두 배 이상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128명에 이르렀다. 2007년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베트남 정부가 국제결혼 규제 정책을 펴면서 6,610명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9,623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12년에는 6,586명으로 지난해보다 13.8%가 감소하였다.

〈표 2〉 결혼이주자의 국적별-성별 체류 현황 (2013년 2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여성	127,668	51,072 (19,984)	39,061	10,719	9,468	4,538	2,568	2,329	7,913
남성	21,127	11,828 (7,689)	308	1,141	287	9	51	69	7,434
전체	148,795	62,900 (27,673)	39,369	11,860	9,755	4,547	2,619	2,398	15,347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2004년의 조사에서도 베트남 신부들의 평균 연령은 21.6세이고 한국과 대만 신랑들의 평균 연령은 34.6세로 파악되어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신부들의 41.3%는 20세 이하이고 53.7%는 20-30세 연령대인 반면에, 50.9%의 신랑이 30-40세 연령이고, 7%는 50세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20세 이하의 신랑은 단 한명도 없었다(Nguyen Hong Xoan 2012).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혼인은 2000년 6,94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 처음 1만 건을 넘어선 후 급증하였다. 2005년에 3만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전년보다 7.3%가 감소한 20,637건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최근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베 부부의 이혼 증가세가 빠른 점이 주목된다. 한-베 부부의 이혼은 2004년 147건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 1,931건, 2012년에는 1,992건을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한-베 국제결혼이 매년 6~8천 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전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또한 2008년 이후 매년 8천 건 내외인 반면에, 한-베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 및 이혼 건수 (2003~2012년) (단위: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혼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7
이혼	547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7,878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표 4〉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 및 이혼 건수 (2003~2012년) (단위: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혼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6,586
이혼	28	147	289	610	895	1,078	1,292	1,552	1,931	1,99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이러한 점은 양국이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증가해왔으며 조화로운 가족생활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는 일부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김현재 2007).

가령, 효심을 강조하고 가족 간 정감과 연망을 중요시하는 점 등이 공통적이지만 양국의 가족관계에서 실천되는 유교문화의 구체적인 면모는 상이한 점이 많고 또한 계층이나 지방에 따라 다양하다. 부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가족 규범과 모변 혹은 처계의 역할도 거의 동등하게 강조하는 베트남의 양변적 가족 관습 간에는 상호 모순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최호림 2013). 양국 모두 남녀의 가정 내 역할과 책임이 분리된 유교문화의 영향권에 있지만 여성이 가내 의사결정과정에 지니는 권한과 역할은 서로 다른 점이 많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결혼과 함께 집안에서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에만 전념해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특히 중하층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경제적 역할이 지대하다(Nguyen Hong Xoan 2013). 나아가 중개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대부분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한국의 중하층 남성과 베트남 남부 빈농출신의 20세 내외의 여성이 양국의 규범적인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가족 내 유교문화의 규범에 대한 상호간의 기대, 즉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베트남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히 많다. 1970년대 이전에는 프랑스, 미국 등 서구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메 떠이(*mẹ tây*, 서양인의 여자)”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서구인들과의 결혼과 유사하게 최근 중개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대부분도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된 것이며, “매매혼”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근 국제결혼을 빗대어 “여성이 외화를 벌어들인다”(Nữ sanh ngoại tệ)라고 말하는 신조어는 “여자는 남의 집안 자식을 낳는다”(Nữ sinh ngoại tộc)라는 속담을 변형시킨 것이다.

〈표 4〉 베트남의 미디어가 재현하는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주8)

구 분	베트남 공식 미디어의 재현 이미지
국제결혼	베트남의 이상에 대한 위협과 도전 우려, 분노를 유발하는 불확실성의 이슈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갈등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 언어, 문화의 차이, 희망과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된 실망과 비극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63.5%가 사랑 없이 결혼 노예제와 유사한 “매매혼”
동아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여 이용당하는 수동적 희생자 상품화된 존재 혹은 “섹스워커” 이기적 목적을 지닌 기회주의자, 타산적 물질주의자 가족, 공동체, 국가에 무책임한 자, 나라의 수치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처한 사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	가난하고 무능하고 늙은 자 화를 잘 내고 폭력적 인성, 도덕과 윤리가 없는 자 결혼을 기피하는 자국 여성의 희생자, 능력 없는 총각
결혼 중매업	불법브로커, 인신매매로서 중매업 여성을 상품화하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 활동
국제결혼이 국가에게 미치는 결과	국가의 자부심을 해침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게 될 젊은 남성을 압박 혼혈 자녀의 문제 이혼·도망하여 귀국한 신부는 늙은 부모뿐 아니라 사회에 큰 부담 초국가적 네트워크, 미래의 투자 등 이주의 효과에 관한 언급은 부재

대중매체에서도 젊은 여성의 국제결혼 급증 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자주 등장해 왔다.⁹⁾ 특히 1999~2007년 기간에 많은 보도가

8) 이 표의 내용은 Bélanger, Khuat, and Tran(2011)의 분석 내용 중 요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9) 이하의 분석은 대부분 Bélanger, Khuat, and Tran(2011)의 연구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베트남공산당, 여성연맹, 공산당청년운동 등 국가기관과 지방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기사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1998~2007년에 게재된 베트남여성과 동아시아 남성 간의 국제결혼에 관한 300개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이중 70%인 210개가 2002~07년에 게재되었고, 2006년에만 100개의 기사가 포함되

집중되었다. 베트남 공식 미디어의 보도에서는 중개업에 의한 국제 결혼이 지극히도 부정적이며 위협적이라고 묘사되고, 대만과 한국은 수치스러운 혼인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농락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그려지고 있다. 여성은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불쌍한 희생자이므로 국가는 그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들은 또한 편안한 삶을 열망하는 물질주의적 기회주의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여성들은 가족, 공동체와 국가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판받는다. 착한 딸,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이자 시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조국을 떠난다고 비판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의 주체성, 능동성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직 센세이셔널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보도된다. 학대, 겁탈, 가내폭력과 낙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나아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국가의 담론은 동아시아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베트남 사회의 이상에 대해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세계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Bélanger, Khuat, and Tran 2011, 25-26).

Ⅲ. 귀환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

메콩델타 농촌의 빈곤층 출신 이주여성들은 가난을 면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부족으로

있다. 매체별로는 정부의 공식 온라인 매체인 VnExpress의 기사가 102개(34%)로 가장 많았고, Lao Động[노동]에서 58개, Giải Phóng Sài Gòn[사이공해방]에서 35개(11.6%), Star에서 21개(7%), 그리고 나머지는 Phụ Nữ Việt Nam[베트남여성], Thanh Niên[청년], Tuổi Trẻ[청춘], Vietnam Net 등에서 찾았다(Bélanger, Khuat, and Tran 2011, 16-17).

인해 노동이주와 같은 다른 형태의 경제적 해외이주를 선택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질적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낯선 나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 귀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공동으로 경험한 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달콤한 꿈, 쓰라린 종말(sweat dream, sour ending)”이며 그 사이에는 “상상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있었다(Bélanger, Khuat, and Lee 2011).

1. 기대와 현실의 차이

중매업체의 알선에 의해 며칠 만에 이뤄지는 국제결혼 과정 자체에 이주여성 귀환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중개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 해체의 많은 원인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배우자 및 문화에 대한 정보의 제약과 왜곡 등 결혼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남성에게 “공급 국가로의 패키지 투어”(package tours for men to "supplier" countries)를 제공한다. 보통 7~10일간 기간 동안 여성을 고르고 형식적인 혼인절차를 시작한다. 남성이 귀국한 후 중개업체는 이주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해결하고 몇 달 내로 신부가 남편의 가족으로 합류하게 해준다. 그 비용은 보통 건당 6,000~12,000달러인데 신랑가족이 부담한다(Bélanger 2011, 10).

우리 가족은 몹시 가난했고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다. 마을에는 대만 남자와 결혼해 부모님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여자들이 많았다.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는냐는 생각이 들었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서 고향의 가족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었다.(Thu 28세)

나는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구타하고 술을 너

무 많이 마시고 가난하여 내 가족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었다. 내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지금은 더 이상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Câu, 25세)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베트남 여성은 송금을 통해 친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반면에 한국의 남편은 대개 노동력을 보충하고 출산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이주여성은 한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사전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 전 한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지식은 대개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것이어서 왜곡된 면이 많다. 대만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베트남 여성은 반드시 두 시간짜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한국행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 없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당시 한국행 베트남 신부에게 유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남부 베트남 소재 단체는 비정부기구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ACEF)과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등 두 곳뿐이었다. 이 단체들의 교육과정은 자발적인 참여자에게만 제공된다. 모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두 달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입국한 경우도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중매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에서는 이렇게 양쪽의 기대와 욕망이 서로 다르고 또한 모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급속하게 성사된다. 베트남의 전문가들은 “인신매매성 수익사업”에 인간적인 정보가 소통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귀국여성 중에는 중매업체가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매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업체는 결혼을 성사

하면 1건 당 보통 1천5백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이중에 약 1천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 대개 몇 십만 원이 신부 가족에게 지불된다. 수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혼인을 성사시켜야 하므로 특히 법적 절차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가령, 남편이 아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폭행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주여성이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고 알려주지 않거나 보내지 않을 것이다.(KOCUN 권터시 지부 담당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호치민에 어느 비밀스러운 집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여성을 고르는 선을 본다. 한두 명의 남성이 20~30명의 여자를 보고 고르는 게 대부분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관습이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행태이다. 이것은 여자를 매매하는 것이며 심지어 성매매하는 것이기도 하다. 15,000달러에 이르는 비용은 사실 가난한 한국인 남성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한국 남성은 그 돈이 모두 베트남 신부를 구하는 데 투자된 비용으로 간주하지만 그 대부분을 브로커가 챙기고 실제 베트남 신부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여지는 거의 없다.(베트남여성연맹 권터시 지부)

결혼 전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당시 베트남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던 한국인 남자 중매업자로부터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My, 22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교사라고 하였으나, 실제 경주시 교외농촌에 사는 가난한 농부였다. 후회를 많이 했다. 남편 집에서 남편 부모와 같이 살았다.(Thanh, 25세)

처음 중매업자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돈이 많으면서 허세를 부렸다. 중매업체는 남편이 버스회사 관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비였다. 더구나 한국에 가면 시부모와 따로 살 것이라고 하였으나,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다. 집은 부산 근교의 농촌이었고 남편 가족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 남편은 출근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생이 남아 같이 농사를 지었다.(Kiêu, 25세)

귀국여성들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기본적인 가족관계의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론했다. 이주 여성들은 송금이 주요 목적이어서 궁극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수단화하였다는 의혹이 지속된다. 실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도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남편과 그의 가족은 이주여성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재혼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하였다. 중매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항의하고 강제 이혼 후 같은 중매업자를 통해 재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대가를 지불한 소유물처럼 취급하였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이주전공 사회학자 홍 쏘안(Nguyen Hong Xoan) 교수는 “중매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 남편 대부분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를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가정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구조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문화는 이주여성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 장벽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 불행감을 유발한다. 이는 특히 이주 초기에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이주여성들이 자주 토로하는 외로움의 이유가 된다.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들은 어떤 관여도 못한다고 호소하는 이주여성들도 많다”고 했다(인터뷰, 2013년 7월 1일).

이혼당하고 나서 중매업자는 내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돌려달

라고 했다. 그러면 나를 베트남으로 돌려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베트남으로 전화도 못하게 하였다. 내가 베트남으로 못 돌아갈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에 돌아오자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다.(Yên, 25세)

나는 이혼 당한 후에도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다. 중매업자는 결혼할 때 지불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나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나를 다시 3천 달러에 팔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이 들었으니 까 너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한다”고 했고 때리기도 했다. 중매업자도 집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갚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3백만 동(약 20만 원)도 채 받지 못했다. 나머지는 중개업자가 다 가로챘 것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호치민시까지 렌터카를 타고 오셨는데 차를 대여한 비용도 직접 지불해야 했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다.(Linh, 23세)

나는 결국 도망 나왔다. 한국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어서 친정의 부모도 돕고 싶었는데, 취업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갇혀 있었다. 남편가족은 마치 농사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여 나와 결혼한 것 같았다. 종일 농사일만 시키고, 베트남에 전화도 못하게 하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도망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도망을 나와 울산 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였다.(Lan Anh, 24세).

2. 곤경과 갈등

나는 남편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의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가면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남편의 사업을 돕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고 싶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까지 종일 밭에서 일만 하였다. 남편

가족은 나를 돈으로 사 온 일꾼으로 취급하였다. 여전히 발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니 너무 실망하였다. 한국생활은 내가 원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Thúy, 26세).

이혼 후 귀국한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폭력에 시달리고 일꾼 혹은 상품 취급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외딴 농촌이나 산촌 혹은 도시의 빈곤층 거주지에 거주했을 경우 사회적 고립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귀국여성들은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남편 식구들만 보고 살아 매우 고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대개의 경우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와 일상생활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 침해성 폭력을 당한 경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이주여성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가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여되고, 이주여성의 일상적인 자유도 제한되어 있다. 여성이 직장을 구하고 사회적 커뮤니티에 완전 참여하는 데에 큰 장벽이 있다. 한 전문가는 자신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는 한국인 친구가 없다. 한국에서 TV 드라마를 보았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집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지에 있었다. 시내 시장에도 몇 번 가보지 못했다. 가까운 곳에 여행도 하지 못했다. 고립되어 일만 하고 지냈다. 내가 구타를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일을 안하고 도망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다. 남편과 남편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Thúy, 26세)

결혼 당시 남편은 44세였고, 울산의 공항 근처에 살았다. 남편의 직업은 불확실하였다. 막노동을 나가기도 하고 간혹 장사를 나가기도 하였으나 쉬는 날도 많았다. 시부모와 별거하였으나, 남편이 밖에는 못 나

가게 하고 종일 집안 일만 하도록 하였다. 나도 돈을 벌어 친정을 돕고 싶다고 하였으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히려 나를 때렸다. 짐차 너무 많이 때려서 참지 못하고 도망 나왔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울면서 베트남에 전화하니 부모님은 베트남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술을 많이 먹고 여자를 때리는 베트남 남자들이 싫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한국 남편이 더 심했다. 남편도 가끔 베트남으로 전화하였지만 남편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여보세요”만 반복하였다.(Câu, 25세)

베트남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였으나 한국에 가니 남편이 나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같이 자는 것을 싫어했다. 한국에 도착한 그 날부터 이미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다. 자신에 대한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남편 여동생에게 맡겼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매일 시누이와 일을 하며 말도 했다. 남편과 관계에서 어려운 점을 말하면 시누이가 나를 때렸다(Tu, 25세).

한 달에 두 번 정도 베트남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오래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누이가 곁에 지키고 있으면서 감시하고 간섭하고 자주 호통을 쳤다. 전화는 5분도 채 못하였다. 시장을 가거나 나들이도 시누이와 같이 갔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시누이와 같이 갔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 자주 울었다. 그러니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베트남의 부모와 가족이 생각나서 참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맞으면서 일만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당했다.(Linh, 23세).

남편과 남편가족은 베트남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즉, “상호 문화이해 욕구가 없는 다문화가족”인 셈이다.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어떤 존중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삶이 경제적으로는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을 기대하였으나 전업주부로 지내야 하는 이주여성들은 쉽게 불만을 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 장벽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 불행과 갈등을 유발한다.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들은 어떤 관여도 못한다고 호소하는 이주여성들도 많다. 대만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한국 남성과 가족들은 자녀를 베트남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한국에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자녀가 특히 “가난한 동남아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택에서 한국음식을 먹을 때 입맛에 맞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베트남음식을 요리하지 못하게 했다. 모두 한국음식만 먹고 베트남 음식을 못 먹게 했다. 나도 한국음식을 좋아하지만 못 먹는 것도 많았다. 한국에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남편은 베트남어를 아주 조금 밖에 몰랐다.(Kiêu, 25세)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가족들은 내가 고집이 세다고 하였는데, 사실 내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시누이가 고함을 치며 말을 하지만 나는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베트남의 중매업자에게 전화하여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Tu, 25세)

귀국 여성들은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함께 남편의 건강 및 경제능력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귀머거리와 마찬가지로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짐작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경제적 충족뿐만 아니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이 중요하다. 베트남 신부는 젊고 건강한 반면에 나이가 많은 남편의 건강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문제로 인해 일을 나가고자 하는 여성이 많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도 고된 작업과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공장 미숙련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을 한 경우 비싼 비용 탓에 자녀들을 보육 기관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나가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일을 나가는 이주여성들은 시부모가 포함된 대가족에서 사는 경우이다. 일부 귀환 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는 하지만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무리 한국 생활이 좋다고 해도 베트남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행복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다.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어 서로 더 이해하고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유학생은 지위나 계층이 높은 사람들로 간주하여 가까이하기 힘든 반면에, 베트남 남성 이주노동자와 친분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불륜관계에 대한 의심과 추문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가족해체 및 귀환 후의 문제

이주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체류자격 문제이다. 언어 장벽은 남편 및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의 행사나 행정 서비스의 이용도 어렵게 한다. 법 정보나

지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어, 이혼 서류를 온전하게 얻지 못하고 귀국하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시민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여성도 있었다. 아내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까 두려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차단하는 남편도 있다고 토로한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 혹은 가출을 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온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이유 중에는 베트남에 돌아가도 다시 온전한 사회의 구성으로 재적응하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혼이나 사별 후 귀국한 여성들도 대부분 부모나 가족에게 사실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채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는다. 일부는 카라오케나 마사지숍 등 일종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귀국하여 아들을 출산한 여성도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도시로 나가 일하고 있었다. 이주여성은 결혼 후 많은 갈등이 발생하여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면 남편도 나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롭고 힘들어도 참으려고 했다. 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남아야 했다. 3개월이 지난 후 내 남편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개업을 했던 여자도 나를 때렸다. 그 여자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이틀 동안 몰아 놓고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였다. 중개업자가 내 이혼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에서 재혼하기도 어렵다. 남편은 나와 이혼한 후 한 달 만에 다른 베트남 여자와 재혼하였다.(Linh, 23세).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였지만 열심히 일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남편은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나에게 악취가 나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Tu, 25세)

이혼 이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다가 결국 귀국한 여성은 모두 한국에서 체류할 권리를 희망하였다.

도망을 나와 울산 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베트남 여성노동자들과 같이 어울려 5개월간 일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귀국해야 했다. 나중에는 친해진 10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과부터 조금씩 모두 1,300달러를 빌려서 비행기 표를 사서 도망 왔다. 아무 것도 안 가지고 도망하여 살다가 귀국하였다. 이혼을 하여도 체류자격이 있으면 좋겠다.(Câu, 25세).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이유 중에는 베트남에 귀국하여 다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여성은 이혼 후 베트남으로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고향마을에서 살지 않는다. 대부분이 주변 도시에서 일하다가 다시 이주할 기회를 찾는다.

이혼이나 사별 후 귀국한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로는 사회적 낙인과 재적응의 문제, 국적 회복의 문제, 경제 문제, 육아 및 자녀교육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후 이혼한 여성에 대한 시선은 다른 이혼 사례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다.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 경우는 더욱 힘들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메콩델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고, 딸이 결혼한 이후에 사위나 그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이혼한 자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층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다수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집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여성은 특히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고향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시로 나가 일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경우는 재혼도 쉽지 않다. 남편과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식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베트남에서 한-베 '혼혈' 자녀의 존재도 공공연히 말해지고 있다. 귀국여성이 상황이 관련기관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버려진 채 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 귀국 후 자녀와 같이 살더라도 사람들은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 경험이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없다. 혼혈아동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2009년에 대만과 한국을 모두 합치면 3~4천 명 정도라는 추정치가 있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게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국민감정은 다른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스스로 선택한 국제결혼생활에 실패한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만의 국제결혼 상황은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대만에선 자녀를 외가에 보내고, 취학 전에 베트남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아이들을 베트남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혼한 여성은 법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기도 쉽지 않다. 아이를 데리고 와도 제대로 교육시킬 형편이 되지 않는다.(Nguyen Hong Xoan 교수와 인터뷰, 2013년 7월 1일).

이혼 후 귀국한 여성은 대부분 원래 가난했던 처지였고 귀국하여도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직업도 없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빈곤층의

다수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베트남 지방에 따라 사회단체나 NGO가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발적으로 생계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국여성의 자녀양육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아이를 친정부모에게 맡기거나, 혹은 ‘보육시설에 내팽개치고’ 일자리를 찾거나 재혼 기회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혼 후 귀국한 여성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한마디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는 점이다. 귀국여성 대부분이 아주 쇠약해진 상황에서 돌아오며, 한국에서 고통스럽게 이혼을 경험한 경우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경우도 많다. 한국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시댁과 남편의 압력에 괴로워하고, 또 절망감과 수치심과 함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혼을 당하고 귀국할 때 몸이 너무 아팠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도 힘들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서 여러 달 치료를 받았다. 이혼 후 나의 건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잘 먹을 수도 없었다. 나는 너무 슬펐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혼을 당해서 매우 창피하였다.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입원하였다.(Lan, 23세)

귀국 후 한 동안 병에 걸려 몸이 너무 약해졌다. 병원에도 다녔으나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편에서 같이 살며 회복하고 있다. 이혼을 당하고 30세가 되도록 남편도 아이도 없이 부모와 같이 사는 딸을 매우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다. 내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난다.(Liêu, 30세)

IV. 맺음말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여성의 결혼이주 흐름이 국제이주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 왔다. 반면에 이주여성의 귀국 현상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송출국 사회의 시선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귀환 이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국제결혼가족의 해체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였으나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귀국한 베트남 메콩델타 농촌 출신 여성들을 만나 면접하였다.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가족 해체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원인이 상업적인 중매업을 통해 급속히 진행되는 국제결혼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배우자가 속한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거나 왜곡된 상태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빈곤을 탈출하고 본국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주여성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기본적인 가족관계의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귀국한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폭력에 시달리고 일꾼 혹은 상품 취급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게서 베트남 문화나 언어에 대한 관심 혹은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귀국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함께 남편의 건강 및 경제능력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자녀 양육문제도 심각했다. 이혼한 이주여성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체류자격이다. 귀국한 이주여성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이주할 기회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자의 귀환 이유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귀국 후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경험과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경험들은 열망과 희망, 실망과 낙담, 그리고 분노와 좌절 등 연속성을 갖는 일련의 감정들로 녹아 있다. 나아가 결혼이주자의 귀환은 귀국 이후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장기적인 이슈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결혼이주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외로 이주해 나가기 위한 단번의 시도가 아니라 장기간 정착을 통한 가족 재구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 추세는 당사자인 베트남 신부와 한국 신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결혼이주자를 보내는 국가와 결혼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여성들의 부적응은 송출국뿐만 아니라 수용국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물론 결혼이주여성 중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베트남보다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느끼며 남편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편가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도 건강하게 키우면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신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행복 비결은 남편과 시부모 모두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므로 스스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몇몇 여성들은 남편이 집안의 거의 모든 대소사를 자신과 의논하게 되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시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베트남 도심 지역 출신이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보다 남편과 시부모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있었다.(Nguyen Hong Xoan 2013)

그러나 중매업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대다수 베트남 이주여성은 이러한 사례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으며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국여성의 이야기에는 국제결혼과 이주과정에서 이들이 겪은 고충과 수용국에서 경험한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혼, 사별, 강제 귀국 혹은 도망 등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한 ‘가족 해체’의 경험은 이주민의 인생에서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단지 가족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귀환 이주여성들이 겪은 바는 한국에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한 고통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출신국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결혼이주로 야기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바와 같이, 젊은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게 될 한국의 각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신 지방에도 상담센터를 증설하여 외국인과의 결혼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과 이들과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게 결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필요한 사전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이주여성 출신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귀환 이주여성의 문제는 한국정부에게 외국인 신부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혼이나 사별한 베트남 여성에게도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지속적인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실천 사업

들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삶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본국으로 돌아온 베트남 여성들에게 재정적·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고국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이 송출국과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투 고 일: 2015년 1월 16일

심 사 완 료 일: 2015년 2월 4일

게 재 확 정 일: 2015년 2월 9일

참고문헌

-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 및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최호림·마경희·선보영·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9-254.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 75-10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2월호.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역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pp. 321-349.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최호림. 2013. “베트남의 결혼이주와 귀국 이주여성” 2013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 “아시아 시대, 중심을 가다” 제5회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베트남 편”, 2013년 6월 4일.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Bélangier, Danièle. 2011. "Marriages with Foreign Women in East Asia: Bride Trafficking or Voluntary Migration?" paper presented for the Workshop on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o East Asia: Toward a Multi-dimensional View"* July 1st 2011, Hanoi, Vietnam (org. b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ISDS) pp.8-13
- Bélangier, Danièle, Khuat Thu Hong, and Lee Hye-Kyung. 2011. "Sweat Dreams, Sour Endings: Stories of Vietnamese Immigrant Spouses Returning Home," paper presented for the Workshop on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o East*

- Asia: Toward a Multi-dimensional View*" July 1st, Hanoi, Vietnam (org. b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ISDS).
- Bélanger, Danièle, Khuat Thu Hong, and Tran Giang Linh. 2011. "Threatening Nationalism, Patriarch and Masculinity: Constructions of Transnational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East Asian Men in Vietnamese Mass Media," paper presented for the Workshop on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o East Asia: Toward a Multi-dimensional View"* July 1st, Hanoi, Vietnam (org. by ISDS).
- Duong Hien Hanh. 2008. "Broken up cases of Taiwan-Vietnam Marriag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Multicultural Marriage in Globalization Era"*. The Centr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for Social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in HCMC. 29-30 August, HCMC, Vietnam.
- Hoang Ba Thinh. 2008.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n-Vietnam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Multicultural Marriage in Globalization Era"*. The Centr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for Social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in HCMC. 29-30 August, HCMC, Vietnam.
- Lee Hye-Kyung. 2012. "Marriage Migration in Asian Region: Receiving Country's Perspective," 2012년 한국인구학회 국제심포지엄 [혼인 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아시아의 맥락에서(Demographic Perspectives on Marriage Migration from Asian Contexts)] 발표문, 2012년 9월 8일, 부산.
- Luu Phuong Thao. 2008. "'Cross-Border Marriage- good and bad sid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Multicultural Marriage in Globalization Era"*. The Centr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for Social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in

HCMC. 29-30 August, HCMC, Vietnam

Nguyen Hong Xoan. 2012. "Contemporary Cross-Border Marriage Migration in Vietnam: Patern and Consequence: Case study of Taiwan-Vietnam and Korean-Vietnam Marriage," 2012년 한국인구학회 국제심포지엄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아시아의 맥락에서] 발표문, 2012년 9월 8일, 부산.

_____. 2013. "The life experiences of Vietnamese Brides in Korea- An Analyzation from Cultural Perspectives", 한-아세안센터 다문화 Workshop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아세안의 기여” 2013년 5월 16일.

Nguyen Thi Hoa. 2008. "Social Mobility and its relationship to Cross-Border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Multicultural Marriage in Globalization Era*”. The Centr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for Social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in HCMC. 29-30 August, HCMC, Vietnam.

Nguyen Van Tiep. 2008. “Understanding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Influencing Korean-Vietnam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Multicultural Marriage in Globalization Era*”. The Centr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for Social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in HCMC. 29-30 August, HCMC, Vietnam.

VnExpress. 2004. "Thảm cảnh của những cô gái Việt lấy chồng Đài Loan" (대만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의 참혹한 처지) [http://vnexpress.net/gl/xa-hoi/2004/07/3b9d4694/\(2004-7-12, Thanh Nien- VnExpress\).](http://vnexpress.net/gl/xa-hoi/2004/07/3b9d4694/(2004-7-12, Thanh Nien- VnExpress).) (검색일: 2013.3.8)

Vietnamese Marriage Migrant Brides
Returning Home:
Implications for Korea's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CHOI Ho Rim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ReDI)

This study looks at the problems of Vietnamese marriage migration to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While marriage migration flows have received heightened attention, little concern has been shown for marriage migrants wh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study focuses on the voices of Vietnamese female migrants from rural villages in the Mekong Delta, who have returned their communities they come from. The returnees' stories could be summarized as "a sweet dream, a sour ending," between which there were various experiences that caused their imagination and expectations to crumble. The current overwhelming imagination and expectations for "multiculturalism" in Korea might be crumbled as well. Although a number of Vietnamese women immigrate to Korea expecting a better life in every aspect, their lives are not that bright. Their maladjustment brought various adverse effects not only to the

sending country but also to the receiving country. Although both countries, Vietnam and Korea, have put much effort to mitigate the unexpected results of this movement, the problems these brides face are still significant.

Keywords: Vietnam, marriage migration, migrant returnees, multicultural society, Mekong Delta